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과학자-작가’ 유형 연구

신승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준*

본 연구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찾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젊은 작가’와 ‘전문 작가’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신승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 중 하나로 ‘과학자-작가’ 유형이 존재함을 규명했다. 북한은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원칙으로 ‘과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학적 상상력과 함께 풍부한 과학기술 지식을 보유한 전문 SF 작가의 등장을 예상하게 만든다. 동명의 신승구가 발표한 소설과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작품에 나타난 과학 개념이 논문 속 연구 주제와 중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승구의 창작 이력과 학술 연구 성과를 추적했으며, 둘은 같은 인물로서 과학환상문학 창작을 맡고 있는 겸업 작가, 즉 ‘과학자-작가’라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작가론 연구에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과학자-작가’로서 문학작품 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생산 구조와 ‘전문 작가’에 대한 기존 이해를 수정·보완하는 후속 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과학환상문학, 신승구, 과학자-작가, 창작 주체, 북한문학, 작가론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하나는 ‘젊은 작가’들이 장르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전문 작가’ 집단이 창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젊은 작가’는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구분으로 창작의 참신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전문 작가’는 문학제도 내에서 축적된 창작 경험과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차원의 범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창작 주체를 분석할 때에는 세대적 특성과 직업적·제도적 전문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창작 주체를 하나의 기준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연령이나 세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창작 경력과 직업적 배경이 간과될 수 있으며, 전문성 역시 그 형성 과정과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될 경우 설명력을 갖기 어렵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는 세대적 특성과 전문성을 동일한 차원에서 대비하기보다, 각각의 분석 기준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과학환상소설 작가 신승구에 관한 정체성 평가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과학환상소설은 주로 신인(新人)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리금철과 리명현, 신승구는 김정은 시대에 다수의 과학환상소설을 발표한 작가로서, 과학의 지평 위에서 전개된 상상력이 호평받은 바 있는 ‘젊은’ 작가들이다”¹⁾라고 강조했다. 또한

1)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김정은 시대’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 흐름에도 변화의 조짐이 관찰된다고 분석하면서,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으로 주목받는 신승구를 비롯하여 활발히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리명현과 같은 신인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²⁾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과학환상소설은 주로 전문 작가군에 의해 창작되기에 아마추어 문인들의 글을 주로 신는 『청년문학』보다 주로 전문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는 『조선문학』과 『아동문학』에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인다”³⁾라고 서술했다. 신승구, 엄호삼, 김순희, 리금철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을 ‘전문 작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신승구의 경우 한편에서는 ‘젊은 작가’, ‘신인 작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 작가’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을 분석해 보면, 그가 ‘젊은 작가’나 ‘신인 작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문학적 상상력만 가지고는 접근하기 힘든 공학적·열역학적 지식이 작품 안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는 “산소분리기, 태양렌즈, 레이자분리막, 질소, 량자컴퓨터” 등 북한의 과학기술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들이 서사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이 발명한 ‘회오리 수송관’은 단순한 SF적 상상물이 아니라, 유체역학과 에너지 공학에 기반한 과학기술 논리를 상당 부분

과학환상소설 읽기,” 『동악어문학』 제77집(2019), 129.

2)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133.

3) 임인화, “교양교육 제재로서 북한 과학환상소설 역할 연구: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수록본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9호(2015), 256; 지신영,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향하는 과학환상소설 분석: 『숲을 사랑하라』, 『숲은 젊어진다』를 중심으로,” 『고향논집』 제69집(2021), 93.

반영한 것이다. 이는 해당 작품이 문학적 환상은 물론 실제 과학기술 지식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논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작가 신승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작품 내부의 이데올로기와 서사 구조, 과학자 형상화 분석에 집중해 왔다.⁴⁾ 반면에 이러한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에 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다.⁵⁾ 창작 주체를 평가한 기존 논의에서도 작가의 세대적 특성과 전문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는 것은 작품 속 청년 과학자의 형상과 실제 창작 주체의 성격을 충분한 검증 없이 연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승구가 과연 ‘젊은 작가’ 또는 ‘신인 작가’인지, 아니면 창작 경력과 과학기술 지식이 풍부한 ‘전문 작가’가 맞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의 작품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등을 중심으로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

4)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난 서사와 메시아니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9집(2020), 99-130;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현대소설연구』 제77호(2020), 307-331; 오테호,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최근 『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1호(2023), 131-158; 최수웅·이지용, “북한 ‘주체적 과학환상소설’의 장르적 특징 연구: 황정상의 『푸른 이삭』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5권 1호(2016), 159-180.

5) 마성은,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2010), 341-373.

작 주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학술자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동명의 연구자가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속으로 ‘산소분리기’ 관련 논문을 발표한 ‘신승구’가 존재한다.

과학자 신승구의 논문들과 작가 신승구의 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을 비교해 보면, 작품 속 ‘산소분리기’가 학술연구 주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그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신분으로 과학환상소설 창작에 뛰어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상은 북한 과학환상문학 연구의 기본 전제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기존의 ‘젊은 작가론’은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이 젊은 신진 작가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세대교체 양상을 띤다고 잠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⁶⁾ 그러나 실제 창작 주체가 국가 과학기술 체제 내부의 전문 연구자라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기술 관계자의 문학적 확장과 후속 세대를 위한 계승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승구를 ‘전문 작가’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직에 종사하면서 겸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작가(scientist-writer)’⁷⁾로 규정한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자-작가’는 공식적인 창작 주체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

6)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129-161.

7) 과학자-작가(scientist-writer)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논의는 해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Yore, Hand, Prain은 “과학자-작가는 전문 분야의 지식과 주제 지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과학 담론에 대한 메타인지적 인식과 글쓰기 전략을 통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다. 또한 과학을 탐구와 논증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과학자-작가는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글쓰기를 수행한다”라고 강조한다. Larry D. Yore, Brian M. Hand and Vaughan Prain, “Scientists as Writers,” *Science Education* 86, no. 5 (2002): 674-675.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하는 겸업 작가의 존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유형의 창작자를 ‘과학자-작가’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장(Field) 이론에 따르면 “문학 또는 예술 분야는 힘의 장(Field)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힘의 장을 변형시키거나 보존하려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문화 생산의 장은 작가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를 강요할 권력이 걸려 있는 투쟁의 장인 것이다. (중략) 작품의 변화 원리는 문화 생산의 장, 더 정확히는 특정 자본의 분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 분배 구조를 보존하거나 변형하려는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행위자와 기관들 사이의 투쟁에 있다”⁸⁾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자는 과학계라는 ‘장(Field)’에서 축적한 고유의 자본, 예를 들면 지식, 권위,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소설을 쓸 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은 문학적 장에서 강력한 ‘상징적 자본’으로 전환된다. ‘과학자-작가’가 창작한 SF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개연성’이라는 독보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과학자-작가’는 과학장과 문학장에 중첩적으로 위치한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과학장에서 획득한 상징자본을 문학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장 내부의 정당성 경쟁에 개입하며, SF의 인식론적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작가 신승구의 소설과 과학자 신승구의 논문이다. 복수의 문학·학술 자료가 저자의 직업, 소속기관, 활동 시기

8) Pierre Bourdieu, *The Rules of Art: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trans. Susan Emanuel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224-234.

와 전문 분야에서 일관되게 수렴하고 있으므로, 문학 저자 신승구와 공학 연구자 신승구는 동일인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과 학술이력 추적을 병행하는 접근은 북한 과학환상문학 창작 주체의 한 유형으로 ‘과학자-작가’의 존재 가능성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나아가 이 방법론은 다른 작가의 정체성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어, 향후 북한 과학환상문학 작가론 연구에 새로운 분석 틀로 쓰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규범과 작가 문제

1) ‘과학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 창작 원칙

북한은 과학환상문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과학환상문학은 자연을 정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환상적수법을 통하여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⁹⁾ 그러므로 과학 환상문학은 일반적인 장르문학의 범주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과학 기술 정책과 사회주의 이념을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문학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원칙으로 ‘과학성’과 ‘생활의 진실’을 제시하며, 환상과 공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¹⁰⁾

이는 종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김정일은 “종자를 옳게 골라

9)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조선문학』 제11호(2012), 51.

10)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51-53.

잡는것은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략) 작가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어 생동하게 형상해낼 때에만 작품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높일수 있다”¹¹⁾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환상문학의 종자는 일반소설의 종자와 비교할 때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주로 과학기술 생활 범위에 서, 새로운 과학탐구 사업이 벌어지는 실천 속에서, 그리고 과학적 가설을 전개한 문헌 작업에서 환상적 성격을 띤 참신한 종자를 골라잡고 잘 형상할 때 과학환상문학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¹²⁾

한편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허구를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활 속 과학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확대·예견하는 방향에서 미래를 형상화해야 하는 장르로 규정된다. 김정일은 환상소설의 ‘환상’이 허황된 공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과학 발전의 합법칙성과 삶의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창작 규범을 제시했다.¹³⁾ 한 평론에서도 “과학환상문학은 미래에 대한 환상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여야만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힘을 안겨줄 수 있다”¹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핵심 원칙이 단순한 상상력의 발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에서는 과학기술의 ‘개연성’이 무엇

11) 김정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5』,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36.

12)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32.

13)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48.

14)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51.

보다 중요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기술은 현재 과학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신승구의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 등장하는 ‘회오리 수송관’이나 ‘태양렌즈’는 유체역학, 태양에너지, 자동화 시스템 등 현실 과학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이 ‘생활의 진실’을 중시하는 점은 현실 사회주의의 생활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북한의 문예이론은 “일반 소설에서도 전개된 생활묘사가 있지만은 과학환상소설에서처럼 자유분방하게 할수는 없다. (중략)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근거있는 과학환상에 기초하여 생활묘사는 얼마든지 전개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¹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서도 핵심 기술인 회오리 수송관은 수산업 생산성과 물류 효율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장치로 묘사된다. “이것을 두고 아직은 그 현실성을 담보할수 없는 생활이라고 하여 과학성이 없다고, 동화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중략) 문제는 그 환상이 현실발전의 요구와 과학발전의 합법직성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대담하게 펼쳐나가야 한다”¹⁶⁾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과학성’과 ‘생활의 진실’이라는 두 축을 통해 구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창작자의 전문성이 중요해진다. 현실 과학기술의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식 과학환상문학이 요구하는 ‘과학적 개연성’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문학적 상상력뿐 아니라

15)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100.

16)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52.

과학기술 지식 자체가 창작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 이는 과학환상문학의 생산 주체가 일반 문학인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2)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과학자, 기술자 형상 창조

북한은 과학환상문학 창작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 형상화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중요한 창작적과제의 하나”¹⁷⁾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며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인 우리 문학에 있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작품형상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매우 영예롭고 중대한 임무”¹⁸⁾라고 말한다.

1983년 5월 3일 발표한 논문에서 김정일은 우리 시대를 과학기술의 시대라 정의하며, 과학기술을 신속히 발전시켜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경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으며, 인민 생활 향상과 국가 위력 강화 역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⁹⁾ 이에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작품이 량적으로 적을뿐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사상을

17)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조선문학』 제5호(1986), 4.

18) 최길상,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하자,” 『청년문학』 제3호(1986), 12.

19)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김정일선집 10』,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81.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문제가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²⁰⁾라고 자기 비판을 통해 작품 창작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의 과학환상문학 작가들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중시하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혁명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²¹⁾라고 역설했다.

『조선문학』의 머리말에서도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한생을 묵묵히 과학탐구에 바쳐가는 사람들의 미더운 형상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창조하여야”²²⁾ 하며, 작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한 몸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과학자, 기술자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형상하는”²³⁾ 데 있음을

20) 최길상,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하자,” 12.

21) 김일성,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발전시키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8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79.

22)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4.

23)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4.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은 이러한 특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과학자와 기술자를 형상화할 때 과학적 가설에 기초한 기술적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본질적 특징이다. 그러므로 작가에게는 문학적 상상력 외에 풍부한 과학기술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제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학기술이 체제의 핵심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학 역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과학자와 기술자를 형상화하는 문학적 전통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강국’ 담론 아래 과학환상문학은 대내외적 고립을 극복하고 자력갱생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북한문학에서 ‘과학기술’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동력, 즉 일종의 ‘만능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므로 과학환상문학 작가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문학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자, 기술자의 형상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품 속 과학자들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충성심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 사회주의 인간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지닌 존재로 등장한다. 즉 과학자는 기술 엘리트이자 정치적 엘리트이며,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혁명적 주체로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변화는 북한문학 장르의 지형에도 뚜렷한

24)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154.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과학환상문학의 재부상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과학환상문학은 보다 본격적인 모습을 띤다. 우선 발표 지면이 확대되면서 『아동문학』 외에 『조선문학』과 『청년문학』에도 많은 작품들이 실리기 시작했다.²⁵⁾ 과학환상문학이 주목받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작품 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창작할 ‘전문 작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3) ‘젊은 작가론’의 한계와 창작 주체 재검토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과학환상문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작품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들이 연합한 다작의 결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체에 29편의 작품이 실렸으며, 중편소설과 환상만화 각 1편, 그리고 처음으로 장편소설이 발표됐다. 과학환상문학의 급격한 증가는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과학환상문학에 대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나 흥미뿐만 아니라 그 사상 예술적 특성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역사적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과학기술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교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문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⁶⁾ 지도자의 관심에 비례하여 작

25)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과 유토피아』(서울: 소명출판, 2018), 190.

26) 서동수, “2000년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양상과 특징: 2000년~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작품을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41집(2021), 170.

가들이 받는 부담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신진 작가의 등장을 말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작가의 퇴장과 신진 작가의 출현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김동섭을 필두로, 석운기, 강진, 차용구, 문희준 등이 주된 작가군이었다. 1980~1990년대까지는 리광근, 조동욱, 엄호삼, 림종철, 라경호, 조희건, 신승구, 림희철, 박종렬 등이 주로 활약했으며 (중략) 2000년 들어 대대적으로 신진작가들의 등장이 시작되었다.”²⁷⁾

그러나 신진 작가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성이나 인물, 소재적 차원에서 완성도가 많이 부족한 작가들이 눈에 띈다. 특히 김순희, 안창준, 오순성의 경우는 이전의 작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⁸⁾ 가장 큰 이유는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원칙인 ‘과학성’과 ‘생활의 진실’을 구현하는 데 있어, 신진 작가들이 기존의 전문 작가들에 비해 생활 경험과 과학기술 지식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문학의 특징으로 젊은 신인 작가들 중심으로 과학환상소설 창작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²⁹⁾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은 새로운 수령의 형상화라는 고민을 거쳐, 능라인민유원지와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인민 삶의 변화와 ‘과학기술강국’ 완성에 대한 열망에 이르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³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나온 과학환상소설 작품이 부족

27) 서동수, “2000년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양상과 특징,” 171.

28) 서동수, “2000년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양상과 특징,” 171-172.

29)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129-161.

30)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131.

한 실정이므로 몇 가지 징후들을 살피면서 과학환상소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작가군의 세대교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교체인지 확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와 관련하여 ‘젊은 작가론’은 특정 시기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다만, 자료 접근의 제한, 작품 목록의 미입수, 그리고 김정은 시대 작품 중심의 분석 등 한계적 요소를 고려할 때, 텍스트 속 청년 과학자 형상과 실제 창작자의 세대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 작가와 젊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양적·질적 검토 역시 과제로 남는다. 향후 미입수 자료 확보와 시기별 작품 목록이 보완된다면, 창작 주체를 둘러싼 ‘젊은 작가론’의 외연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3. 신승구 자료의 재구성과 저자 동일성 분석

1) 작가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 창작 이력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 창작 이력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학환상소설작품집에 단편소설을 발표한 시기이다. 그는 1990년 과학환상소설집 『지구밖으로』에 “무중력비행선”을 선보였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나’는 고등중학교 과학소조 책임자로서, 전국 발명품 전시회에 꼬마우주비행선을 출품해야 하는 102번째 과학소조원 ‘영림’을 지도하는 내용이다. 연이어 1991년 과학환상단편소설집 『열

〈표 1〉 신승구의 SF 작품 목록

작품명	출처	장르
무중력비행선	(과학환상소설집) 지구밖으로 1990	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	(과학환상단편소설집) 열을 내는 꽃 1991	과학환상단편소설
츠-1촉매의 비밀	문학신문 1993. 11. 19	과학환상중편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조선문학 2011. 07	과학환상소설
새날이 밝는다	조선문학 2014. 03	과학환상소설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 ¹⁾	조선문학 2016. 08	단편과학환상소설
요술이 아니었다	아동문학 2018. 04	과학환상단편소설
미끼	아동문학 2019. 01	과학환상소설
되찾은 겨울	청년문학 2020. 07	과학환상단편소설
공기가 불탄다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 2022	과학환상단편소설
농장의 새 아침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 2022	과학환상단편소설
갈매기떼 날아든다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 2022	과학환상단편소설
기이한 사건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 2022	과학환상단편소설
세상에 부럼없어라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 2022	과학환상단편소설

주: 1) 2022년 출판된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에는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로 소설 제목이 바뀌었다.

자료: 2026년 6월 19일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한 목록.

을 내는 꽃』에 “101번째 과학소조원”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무중력 비행선”과 연작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공간 배경과 주인공 ‘나’ 모두 일치한다. 북한의 문예이론서에는 “한 세부, 한 장면의 묘사에서도 주

인공의 성격적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묘사의 집중성과 함축성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³¹⁾라고 분석했다. 작가의 초기 작품이지만 구성의 간결성과 치밀성을 원만히 구현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편 소설의 발표 시기를 보면 신승구는 기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인 작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견 작가, 혹은 원로 작가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한 셈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북한 자료 확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연구, 특히 북한문학 연구는 새로운 작품이 발굴되고 검토됨에 따라, 기존의 해석이 시점별로 달라지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1993년 신승구는 과학환상중편소설 『츠-1촉매의 비밀』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유일한 중편소설이다. 11월 19일자 『문학신문』에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과학환상중편소설 《츠-1촉매의 비밀》(신승구 작, 4X6판)을 출판하였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현재 소설 실물은 볼 수 없지만, 2022년에 나온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에 “츠-촉매의 비밀”이라는 작품명으로 재출판되었다.

두 번째는 작가동맹 기관지인 『조선문학』, 『아동문학』, 『청년문학』에 소설을 발표하는 시기이다. 북한에서 작가가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길은 중앙 단위의 출판물에 작품이 실리는 것이다.³²⁾ 신승구는 2011년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부터 2020년 “되찾은 겨울”까지 작가동맹 기관지에 과학환상소설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의 평론에서는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 대해 “과학환상문학에서 취급된 환

31)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117.

32) 김성수·김성경·민경찬·이지순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8』(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122-123.

상적인 내용들이 꼭 사실로 될수 있는가고, 더우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할수는 없다. 증명된 가설이 가설로 될수 없는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상은 환상이 아니기때문이다”³³⁾라고 평가하면서 과학환상문학의 환상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2022년 저자 이름으로 과학환상작품집 『공기가 불탄다』가 출판됐다. 아홉 편의 단편소설과 한 편의 중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선문학』, 『아동문학』, 『청년문학』에 발표된 작품 외에도 “농장의 새 아침”, “갈매기떼 날아든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발표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소설들이 들어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전문 작가’로서 오랫동안 작품 창작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2) 과학자 신승구의 학술논문 집필 이력

<표 2>를 보면 신승구는 대중교양종합잡지 『천리마』부터 전문학술지인 『금속공업』, 『과학원통보』는 물론 본인이 소속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보에 이르기까지 20년 넘게 과학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1983년 『천리마』에 실린 “은은 어떤 금속인가요”에는 저자 신승구가 김책공업대학 교원으로 나온다. 이후 과학환상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도 등장하는 ‘산소분리기’에 관한 논문으로 “산소분리기와 그의 리용”, “산소분리기의 산소생산능력을 높였다”를 잇달아 발표했는데, 저자는 모두 김책공업대학 신승구로 표기되어 있다.

1988년 논문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에는 신승구가 준박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신승구의 학위가 올라가

33)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52.

〈표 2〉 신승구의 학술논문 목록

논문명	출처	저자 표기
은은 어떤 금속인가요	『천리마』 1983년 제2호	김책공업대학 교원 신승구
산소분리기와 그의 리용(1), 산소분리기와 그 리용(2)	『천리마』 1984년 제10호, 제11호	김책공업대학 신승구
산소분리기의 산소생산능력을 높였다	『금속공업』 1986년 제2호	김책공업대학 신승구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1), (2)	『천리마』 1988년 제7호, 제8호	준박사 신승구
대형산소분리기축랭기에서 가스들의 온도분포에 대한 연구	『과학원통보』 2004년 제5호	신승구
산소분리기정류탑의 상탑에서 팽창공기량이 산소순도에 주는 영향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 2008년 제6호	신승구

면서 계속 연구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 주제인 태양열, 풍력발전은 신승구의 단편소설 “사랑의 불빛”과 과학환상단편소설 “되찾은 겨울”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과학자-작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신승구가 2008년에 발표한 “산소분리기정류탑의 상탑에서 팽창공기량이 산소순도에 주는 영향” 논문은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에 실렸다. 학술지 종류가 주는 함의는 그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속 과학자이며, ‘산소분리기’ 연구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을 보면 그가 1997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출판한 논문 “심랭장치”를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논문에도 자신의 저서로 보이는 『기계 및 자동화공학』을 참고문헌에 표시했다. 따라서 과학자 신승구의 논문 주제와 참고문헌, 그리고 발표한 학술지 등을 고려할 때, 그

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공학부 또는 열공학부 교수로 추정된다.

3) 과학자-작가 신승구의 동일인 추정 근거

작가 신승구와 과학자 신승구의 동일성 여부는 과학환상문학 창작 주체 가운데 ‘과학자-작가’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작가 신승구는 과학환상소설 외에도 실화문학과 일반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여기에 두 명의 신승구가 동일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다.

〈표 3〉 일반 작품 목록이 보여주듯이, 신승구는 1981년 『조선문학』에 실화문학 “미래”를 발표했다. 이 작품에서 그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한다. 신승구는 소설 속 주인공 ‘나’를 김책공업대학 교원으로 명시하면서, 과학자 신승구와 작가 신승구가 동일인이라는 생애사적 정보를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실화문학에서 1인칭 화자 ‘나’는 관찰자인 동시에 기록자인 작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일반 소설과 달

〈표 3〉 신승구의 일반 작품 목록

작품명	출처	장르
숙형이의 마음 ¹⁾	(신인문학작품집) 희망찬 앞날 1974	단편소설
미래	조선문학 1981.01	실화문학
사랑의 불빛	조선문학 2008.10	단편소설

주: 1) 이 작품은 1974년에 발간된 신인문학작품집 『희망찬 앞날』에 수록되었다. 배경은 8대학의 기관실험실이며, 주인공은 주임 박일규와 조수 김숙형이다. 신인 작가 신승구와 과학환상소설 작가 신승구는 동일인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만, 확정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인임이 입증된다면 신승구는 이미 1974년에 창작활동 중인 인물인 것이다.

리, 실화문학은 필자의 이름과 직함이 지닌 사회적 신용을 바탕으로 서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소설 초반에 작가는 자신의 신분을 대학교 교원으로 밝히고 있다.

대학교단에 선 나에게 있어서는 그날도 정상적인 교수사업이 진행되는 새로운 날의 하루였다. (중략) 교편을 잡은 지난 10년세월을 더듬어보건대 나 자신 술한 학생들의 성적표에 점수를 매겼지만 이때처럼 서운했던 적은 있는것 같지 않았다.³⁴⁾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0년이라면 이미 1970년대부터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는 작가 자신이 김책공업대학 소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오늘의 우리 주인공들의 면모를 직접 보고싶거들랑 김책공업대학 3호교사를 찾으시라. 좋기는 시간을 내여 교수참관을 해보시라. 그러면 모든것을 알터이니 ...³⁵⁾

북한은 실화문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실화문학은 실재한 인물,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문학형태이며 따라서 인물, 사건의 실재성은 실화문학의 중요한 특성이 다. 그러므로 작가는 실화문학을 창작하면서 실재한 인물의 인생행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작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깊이있는 사색으로

34) 신승구, “미래,” 『조선문학』 제1호(1981), 77-79.

35) 신승구, “미래,” 80.

그의 인생관의 본질을 옳게 밝혀내야 한다”³⁶⁾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상의 묘사에 관하여 “실화문학의 묘사대상은 평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나온 감격적인 사실이며 여기서 어떤 개별적인 일군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켜서는 안된다. 실화문학은 근로자들속에서 나온 모범을 인민들속에 제때에 널리 알림으로써 그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³⁷⁾라고 말하고 있다.

작품 속 묘사 대상인 수학강좌 교원 김준용은 여러 편의 학술논문³⁸⁾을 발표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무부 지도교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신승구와 주인공 김준용의 관계는 동료 교원인 셈이다. 따라서 실화문학 “미래”의 ‘나’는 작가 신승구의 사회적·직업적 정체성이 투영된 자아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화문학에서 시나 소설의 서술자 ‘나’를 작가와 분리하면서 규정하는 접근은 이 장르의 본질인 기록의 진실성과 직접 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학자-작가’ 신승구의 문학적 실천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그는 2008년 『조선문학』의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60돐 기념특집에 단편소설 “사랑의 불빛”³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소속으로 추정되는 교원들의 단편소설 1편, 시 4편, 그리고 수필 1편이 실렸다. 시 “여기도 《최전연》이다”를 쓴 채철호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36) 예금영, “실화문학창작에서 심오하고 참신한 인간문제의 탐구,” 『조선어문』 제2호(2019), 33-34.

37) “실화문학,” 『아동문학』 제2호(1997), 41.

38) 김준용은 학술전문지 『수학』에 1990년 “유한미방법에 의한 보강판후랏타문제의 해석”, 2009년 “분수계미분에 의한 보강점토펙성원통관의 응력변형상태의 해석” 등을 발표했다.

39) 신승구, “사랑의 불빛,” 『조선문학』 제10호(2008), 34-44.

박사이며, 수필 “졸업휘장”의 작가 황옥련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봇공학연구소 연구사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불빛”의 작가 신승구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이 아닐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신승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는 과학기술 생산 기지를 배경으로 한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1981년 실화문학 “미래”를 시작으로 1991년 과학환상단편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 그리고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로 이어지는 일련의 궤적은 그가 수십 년간 과학 연구와 집필을 병행해 온 전형적인 ‘과학자-작가 (scientist-writer)’의 표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과학자-작가’ 신승구에게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는 꿈의 세계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일상을 ‘미래를 준비하는 전투 현장’으로 격상시키면서 실재하는 공간을 과학환상적 서사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학 기술 지식이 풍부하고 국가 교육기관에 소속된 ‘과학자-작가’만이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 권위로 해석된다.

사실, 신승구의 ‘과학자-작가’ 동일성은 이미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대표 작가 겸 이론가가 그의 문예이론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의 작가는 수송혁명과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작품의 핵으로 되는 사상적알맹이를 과학환상생활과 결부시켜 잡을 수 있었다. 이 소설가는 공학을 전문하는 대학교원으로 당의 수송방침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물동량을 쉽게 수송할것인가를 늘 생각하던중에 (중략) 강력한 분사흐름을 내여 물체를 앞으로 떠미는 유표같은것을 연구하여 리용하면 수송문제를 풀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듭해왔다.⁴⁰⁾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상적 알맹이인 ‘당의 수송방침’은 2011년 과학환상소설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 ‘회오리 수송관’ 발명으로 구현되고 있다.

《지배인동지, 잡기만 하면 뭘합니까? 물고기수송이 걸렸는데. 창고에는 말할것도 없고 부두와 랭동창고에도 물고기가 쌓여 이제 더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잡은 물고기를 부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물고기수송문제를 풀겠는가? 기발한 착상을 제기하자!》⁴¹⁾

결국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주요 성취는 문단 내부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한 신진 작가들만의 업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일정 부분 신승구처럼 국가 과학기술 체제 중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그 위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과학환상문학을 창작해 온 ‘과학자-작가’의 임무 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4. 과학기술 재현 방식과 ‘과학자-작가’ 유형의 창작 구조

1) 신승구 소설에 나타난 과학기술 재현과 자기 투사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과학기술 개념과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 나타난 과

40)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133.

41)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조선문학』 제7호(2011), 62-64.

〈표 4〉 신승구의 논문과 소설 비교

논문	소설
일반적으로 산소분리기의 능력을 더 높이려면 분리가 공기를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고 이 능력한계에 맞게 원료인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축기의 대수를 늘리고 공기의 압축능력을 높여 공기량을 늘여야 하며 ¹⁾	바다에 주입할 산소를 산소분리기로 얻어 낸다는건 전기도 많이 들고 설비가 요란하기때문에 실리가 맞지 않는다. (중략) 공기가 그 막을 지나가는 사이에 산소농도는 21프로로부터 30프로까지 높아질수 있소. ²⁾
산소분리기란 한마디로 말하여 공기속에 포함되어있는 산소를 이러저러한 공업적방법으로 갈라내어 순도가 높은 산소와 그의 부산물로 질소, 아르곤 등을 얻어내는 장치이다. ³⁾	겨울이 되면 바다웃층의 물은 온도가 낮아져 밑으로 내려가고 밑층의 미생물들은 웃층의 물이 운반해오는 산소로 활성화되어 유기물질들을 질소와 린 등 무기질로 분해하지요. ⁴⁾
자연열리용에서는 주로 무진정한 에네르기원천인 태양에너지를 개발리용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⁵⁾	태양에너지를 리용하자는거지. 태양에너지야말로 아무리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무진정한 에네르기의 샘이거던. ⁶⁾

주: 1) 신승구, "산소분리기의 산소생산능력을 높였다," 『금속공업』 제2호(1986), 9.

2)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63.

3) 신승구, "산소분리기와 그의 리용 (1)," 『천리마』 제10호(1984), 116.

4)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63.

5) 신승구,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2)," 『천리마』 제8호(1988), 83.

6)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69.

학기술의 재현은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일반적 자료 조사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표 4〉에서 확인되듯이, 소설 속 문장과 서사 장치들은 신승구가 발표한 실제 학술논문의 과학 개념 및 연구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과학자 신승구와 작가 신승구가 동일인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단서이자,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가 전문 지식인 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산소분리기’를 둘러싼 기술적 배경의 일치이다. 신승구는 논문에서 산소분리기의 능력 한계와 공기 압축기 대

수 조절 등 공학적 메커니즘을 다루었다. 이 전문 지식은 소설 속에서 “산소를 산소분리기로 얻어낸다는 건 전기도 많이 들고 설비가 요란하다”라는 실리주의적 문제의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분리막을 통해 산소 농도를 높이는 과학적 대안 제시로 이어진다. 이는 일반 작가의 상상력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열역학 및 화학적 이해가 과학 환상소설의 서사에 투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한 인식도 논문과 소설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신승구는 논문에서 태양에너지를 “무진장한 에너지 원천”으로 규정하며 개발과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소설에서도 이를 “아무리 퍼내도 마를 줄 모르는 무진장한 에너지의 샘”이라는 문학적 수사로 치환해 똑같이 반복한다. 또한 “바람은 거대한 에너지원천이다. 바람은 지구의 모든 곳에 다 있으므로 운반 수단이 필요없으며 풍차만 세우면 풍차의 원리에 의하여 직접 전기에 네르기로 전환된다”⁴²⁾라는 논문의 서술은 소설 속 풍력 발전기 건설이라는 소재로 이어지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60돐 기념 단편소설 “사랑의 불빛”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논문과 소설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승구는 기존 연구에서 규정한 것처럼 ‘젊은 작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한 과학자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신승구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 중 하나인 ‘과학자-작가’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과학자-작가’ 신승구의 소설 속 자기투사는 ‘페르소나’를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작품 가운데 페르소나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면, 작가의 초기 작품 중 1990년 “무중력비행선”과 1991

42) 신승구,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2),” 83.

년 “101번째 과학소조원” 속의 ‘나’는 고등중학교 과학소조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다. 이는 신승구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에서 비롯된 변형된 모습이다. 두 소설 모두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볼 때, 독자층을 고려한 페르소나 설정으로 읽힌다.

학생과학소조를 무으느라 조직의 분공을 받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일감같은 분공을 나는 아직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요새 와서 나는 학교운동장뒤채에서 새로 과학소조실을 꾸리느라, 한편으로는 소조명단을 작성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⁴³⁾

또한 두 작품 “무중력비행선”과 “101번째 과학소조원”에 에네르기연구소 소장이며 공학박사인 김준 선생이 과학소조의 멘토로 등장한다. 이러한 설정은 북한 아동·청소년 과학교육에 국가 과학기관이 참여하는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인물을 작가의 또 다른 페르소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에 발표된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에서는 페르소나의 양상이 변화한다. 작가의 실체가 작품 속에 더 적극적으로 투영되면서, 과학자 신승구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산소분리기’가 소설의 서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일반 문학인이 자료 조사를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히 ‘산소분리기’라는 핵심 개념은 그의 과학 연구와 문학 창작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

43) 신승구, “101번째 과학소조원”, 김종수 편, 『열을 내는 꽃』(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52-53.

작품 속 작가의 페르소나인 김해동 연구사는 수도의 어느 한 공업 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동해의 물고기 자원을 늘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과학자가 과학기술강국 담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체계 안에서 과학환상문학 작품 창작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동연구사는 이때라는듯 휴대용컴퓨터를 펼쳐놓고 모의실험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바다에 주입할 산소를 산소분리기로 얻어낸다는건 전기도 많이 들고 설비가 요란하기때문에 실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물표면에 레이저분리막을 형성한다는것이였다. (중략) 해동연구사가 일하던 공업대학에서는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수도의 병원에 데려다가 온갖 최신치료방법을 다 적용했다고 한다.⁴⁴⁾

신승구의 페르소나는 작품 속에서 고뇌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실천적 과학기술 연구자이자 혁명가로 등장한다. 이는 ‘과학자-작가’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디테일과 결합하여 독자에게 강력한 유토피아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승구는 페르소나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전형적인 과학자상’을 제시하고 있다.

2) ‘과학자-작가’의 과학환상문학 생산

북한은 과학환상문학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44)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63-64.

특히 김정일은 작가가 보고 듣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깊이는 결국 스스로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된 만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문예이론서에도 “과학환상문학 작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현대과학 지식 이상의 것을 반영할 수 없으며 환상도 그 범위에서만 작용하게 된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때에는 벌써 그 환상적 내용이 허황성을 면할수 없다”⁴⁵⁾라고 서술한 것을 볼 때 일반 작가가 과학환상문학을 창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케 한다.

과학환상 생활탐구를 위한 창작가적 자세에 대하여 김정일은 “우리 나라에는 아직 과학환상소설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가 없으며 또 그런 소설을 쓰려고 하는 작가들도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소설이라고 하면 문학소설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을 과학의 세계에로 불러일으키는 과학소설이나 과학환상소설 같은것도 많이 써야 합니다”⁴⁶⁾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서 탐구생활을 선도하여 이끌어 나가는 시대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문 작가’, 더 나아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자-작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주요 독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므로 과학환상아동문학 창작에 대하여 작가들이 갖춰야 할 자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과학환상아동문학을 창작하자면 작가 자신이 과학발전을 선도하는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파악이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그것을 형상하는 형상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작

45)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64-65.

46)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349-350.

가들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가 못지 않은 상상력을 지닐 때라야 독자들에게 납득이 되는 반드시 실현해볼 꿈을 안겨줄수 있는 훌륭한 과학환상을 창조할수 있다”⁴⁷⁾라고 자격 조건을 내걸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과학환상문학을 창작하는 작가에게는 문학적 역량 외에도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할 풍부한 과학기술 지식이 필수불가결한 소양이 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과학환상문학의 ‘전문 작가’는 실현 가능한 미래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형상 능력과 전문가 수준의 과학적 해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한 작가 가운데 신승구처럼 ‘과학자-작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문 작가가 창작 주체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전문 작가’들이 과학환상문학 창작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문학 생산 관리 시스템과 이들의 창작 환경, 그리고 ‘과학자-작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과학환상문학은 작가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의 제도적 관리하에서 탄생하는 ‘기획 생산물’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 모든 작가들이 국가기관인 조직 단체에 소속된다. 이들은 문화성 산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작가동맹의 각 장르별 분과와 시도 위원회의 지역 지부, 창작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다. ‘조선문학창작사’라는 회사에 소속되거나, ‘우산장 창작실’이라는 숙식 제공 작업장에 들어가 집필에 전념

47) 리유일, “과학환상아동문학의 활발한 창작은 주체적아동문학부문앞에 나서는 시대적요구,” 『조선어문』 제4호(2021), 19.

한다. 국가가 시인, 소설가에게 월급과 창작실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은 당과 국가기구에서 정해진 창작지침대로 시나 소설이란 생산물을 ‘만들고’, 당과 국가기구의 검열이란 생산품 ‘검수’ 과정을 통과한 후 주민에게 ‘납품’한다.⁴⁸⁾

북한 과학환상문학 작가들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신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가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환상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적극 벌이고있다. (중략) 작가동맹안의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집단은 년초부터 집체적인 힘과 지혜를 합쳐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우고 창작활동과 창작지도사업을 힘있게 벌려 작품창작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⁴⁹⁾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 작가군은 문학작품창작집단에 소속된 전업 작가와 신승구처럼 국가 과학기술 기관이나 연구소에 종사하며 집필을 병행하는 전문 과학자형 겸업 작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 과학환상문학 창작에 있어서 신승구와 같은 ‘과학자-작가’의 존재 가치와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국가의 과학기술 담론을 문학적 언어로 창조하는 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 대중의 과학기술 의식을 고양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선전하기 위해 숨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48) 김성수·김성경·민경찬·이지순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8』, 119-121.

49) “다양한 과학환상의 세계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가들,” 『문학신문』, 2004년 5월 15일.

5.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 과학환상문학 작가 신승구의 정체성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하여 ‘젊은 작가’와 ‘전문 작가’라는 서로 다른 기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동명의 과학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 실화 문학, 학술논문, 소속 기관 표기 및 문예이론서의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작가 신승구와 과학자 신승구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신승구는 기존 연구가 규정했던 ‘젊은 작가’가 아니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작품 활동을 병행한 ‘과학자-작가 (scientist-writer)’라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과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과학기술 지식은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거나 자료 조사를 통해 학습한 수준을 넘어, 실제 연구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산소분리기’의 공학적 원리, 태양에너지 활용 등은 그가 발표한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 문제 의식, 전문 용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자 신승구와 작가 신승구가 동일인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신승구의 과학환상소설과 학술논문을 검토한 결과, 그는 북한 문단 내부에서 성장한 전업 작가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체제에 소속된 과학 엘리트로 확인되었다. 그는 1981년 실화문학 작품을 통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연구 활동과 소설 창작을 오랫동안 병행하였다. 특히 2008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60돐 기념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필을 이어왔다. 이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

작 주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직접 창작에 참여하는 ‘과학자-작가’ 유형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과학환상문학의 활성화는 주로 젊은 세대 작가의 등장이나 장르적 실험의 확대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신승구의 사례는 국가 과학기술 체제의 과학 엘리트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창작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문학의 발전은 창작집단 내부의 변화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지식인의 문화적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신승구를 통해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창작 주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문 작가’라는 범주가 문학 전공자나 전업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체득한 ‘과학자-작가’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생산 구조와 창작 주체에 대한 기존 이해를 수정·보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젊은 작가’로 규정한 다른 작가들 역시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신승구와 유사한 가능성이 확인되므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을 분석할 때 작가의 창작활동과 학술 연구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창작 주체를 밝히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향후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생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작가’ 그룹과 조선작가동맹 내 과학환상문학작품창작집단의 관계와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투고: 2026.06.24. / 수정: 2026.07.31. / 채택: 2026.08.03.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금속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83』. 48-9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김정일선집 10』. 증보판. 269-30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김정일. “영화예술론.” 『김정일선집 5』. 증보판. 18-38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신승구. 『공기가 불탄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22.
- 신승구. “무중력비행선.” 김재화 편. 『지구밖으로』. 22-4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 신승구. “숙형이의 마음.” 『희망찬 앞날』. 83-104. 평양: 문예출판사, 1974.
- 신승구. “101번째 과학소조원.” 김종수 편. 『열을 내는 꽃』. 52-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1.
-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 논문

- 리유일. “과학환상아동문학의 활발한 창작은 주체적아동문학부문에 나서는 시대적 요구.” 『조선어문』 제4호(2021), 17-19.
- 리창유. “과학환상문학에서 과학적환상.” 『조선문학』 제11호(2012), 51-53.
- 신승구. “대형산소분리기축랭기에서 가스들의 온도분포에 대한 연구.” 『과학원통보』 제5호(2004), 27-29.
- 신승구. “산소분리기와 그의 리용 (1).” 『천리마』 제10호(1984), 116-117.
- 신승구. “산소분리기와 그 리용 (2).” 『천리마』 제11호(1984), 117-118.
- 신승구. “산소분리기의 산소생산능력을 높였다.” 『금속공업』 제2호(1986), 9-11.

신승구. “산소분리기정류탑의 상탑에서 팽창공기량이 산소순도에 주는 영향.”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 제6호(2008), 181-184.

신승구.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1).” 『천리마』 제7호(1988), 80-81.

신승구. “열공학과 열동력기술의 발전(2).” 『천리마』 제8호(1988), 83-84.

신승구. “은은 어떤 금속인가요.” 『천리마』 제2호(1983), 128-129.

예금영. “실화문학창작에서 심오하고 참신한 인간문제의 탐구.” 『조선어문』 제2호(2019), 33-35.

최길상.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한 작품을 활발하게 창작하자.” 『청년문학』 제3호(1986), 12-14.

3) 기타 자료

“과학환상중편소설 《츠-1축매의 비밀》.” 『문학신문』, 1993년 11월 19일.

“다양한 과학환상의 세계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가들.” 『문학신문』, 2004년 5월 15일.

신승구.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 『조선문학』 제8호(2016), 52-60.

신승구. “되찾은 겨울.” 『청년문학』 제7호(2020), 48-55.

신승구. “무지개를 타고 온 청년.” 『조선문학』 제7호(2011), 62-72.

신승구. “미래.” 『조선문학』 제1호(1981), 77-80.

신승구. “사랑의 불빛.” 『조선문학』 제10호(2008), 34-44.

“실화문학.” 『아동문학』 제2호(1997), 41.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자.” 『조선문학』 제5호(1986), 4-6.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성수·김성경·민경찬·이지순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8』.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과 유토피아』. 서울: 소명출판, 2018.

2) 논문

- 김민선.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어느 멋진 신세계의 풍경: ‘김정은 시대’ 북한과학환상소설 읽기.” 『동악어문학』 제77집(2019), 129-161.
- 마성은. “리금철의 과학환상소설에 관한 고찰: 『아동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6호(2010), 341-373.
-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난의 서사와 메시아니즘.” 『스토리엔이미지텔링』 제19집(2020), 99-130.
-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현대소설연구』 제77호(2020), 307-331.
- 서동수. “2000년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양상과 특징: 2000년~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작품을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41집(2021), 165-193.
- 오태호. “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최근 『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7권 1호(2023), 131-158.
- 임인화. “교양교육 제재로서 북한 과학환상소설 역할 연구: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수록본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9호(2015), 239-273.
- 지신영.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향하는 과학환상소설 분석: 『숲을 사랑하라』, 『숲은 젊어진다』를 중심으로.” 『고향논집』 제69집(2021), 81-116.
- 최수웅·이지용. “북한 ‘주체적 과학환상소설’의 장르적 특징 연구: 황정상의 『푸른 이삭』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5권 1호(2016), 159-180.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Bourdieu, Pierre. *The Rules of Art: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Translated by Susan Emanuel.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2) 논문

Yore, Larry D., Brian M. Hand, and Vaughan Prain. "Scientists as Writers."
Science Education 86, no. 5 (2002): 672-692.

A Study on the ‘Scientist-Writer’ Type in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Focusing on the Case of Shin Seung-gu

Kim, Yeong Ju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o the authors of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are. By analyzing the case of Shin Seung-gu, who receives different evaluations as a ‘young writer’ and a ‘professional writer,’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ence of a ‘scientist-writer’ type as one of the creative subjects of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North Korea requires that the creation of science fiction be based on ‘scientificity’ and ‘the truth of life.’ This suggests the emergence of professional SF writers who possess extens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alongside literary imagin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novels and academic papers published by the author of the same name, Shin Seung-gu, revealed that scientific concepts appearing in the works overlap with the research topics in the papers. Based on this, Shin Seung-gu’s creative history and academic research achievements were traced, and it was strongly presumed that the two are the same person — a writer with a

day job engaged in science fiction — in other words, a ‘scientist-writ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a new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writer theory in North Korean science and fantasy literature. In the future, studying whether other expert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of literary works as ‘scientist-writers’ will be a follow-up task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duction structure of North Korean science and fantasy literature and the existing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writers’.

Keywords: North Korea, science fiction, Shin Seung-gu, scientist-writer, creative agent, North Korean literature, author theory